

광주 제조업 불균형 심화…“미래차 전환 등 신산업 지원을”

광주경총, 산업구조 진단

광주 제조업이 자동차 산업 중심의 단일 축 구조로 빠르게 고착되고 있다.

전자·가전 등 기존 주력 산업은 장기 침체에 빠진 반면,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AI·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아직 제조업 내 비중이 미미해 산업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광주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역 광업·제조업 관련 통계청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 제조업 사업체 수는 약 5500개, 종사자 수는 13만명 수준

자동차 쏠림에 AI·모빌리티 기반 취약 성장동력 약화 지역형 R&D 패스트트랙 도입 등 정책 질적 전환 시급

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하지만 제조업의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는 ‘부가가치’는 약 21조원으로, 수년째 20조원 초반대에 머물며 사실상 ‘제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타 광역시의 제조업 부가가치가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으로, 광주 제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산업 편중이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광주 제조업 생산액의 약 45%, 부가가치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지역 제조업을 사실상 단독으로 끌어가는 구조다.

완성차 실적이 지역 경제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는 불안정한 기반으로, 최근 글로벌 전기차 전환 속도 둔화·미국시장 수요 감소·수출 부진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광

주 제조업의 리스크가 한층 커졌다는 해석이다.

반면 한때 ‘전자·가전 도시’로 불리던 광주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은 사업체 수·고용·생산액이 모두 지속적 감소세다.

생산거점 이전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지역 내 제조 생태계가 급격히 축소됐지만, 이를 대체해야 할 신성장 산업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광주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 산업도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게 광주경총의 설명이다.

AI 기반 공장 자동화·자율주행 부품·차체 경량화 기술 등 신제조 분야가 기대만큼 빠른 사업화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기존 산업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제조업 구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산업 육성 공언을 넘어 미래차 전환 전담 지원센터 설치, 지역형 R&D 패스트트랙 도입 등 실제 공장 안에서 작동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양전석 광주경총 회장은 “미래차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광주 제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내연기관 부품기업이 전기차·수소차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R&D·설비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신산업이 제조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규제를 적극 정비하고, 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통 주력 산업의 연착륙을 위해 고용안정 지원, 사업전환 컨설팅, 정책자금 확대 등 ‘산업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지난 16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기아 오토랜드광주 60주년 기념 ‘기아 하모니 콘서트’를 진행했다.

기아 오토랜드광주, 60주년 기념 ‘하모니콘서트’

축하공연·신차 전시 호응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지난 16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기아 오토랜드광주 60주년 기념 ‘기아 하모니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콘서트에는 광주시민과 임직원 가족 등 4000여명이 함께했으며 강기정 광주시장,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문재용 기아 오토랜드광주 공장장, 은웅 철 기아 노동조합 광주지회장 등이 참

석했다.

콘서트는 광주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무료 문화공연으로, 지역 내 다문화가족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 약자 500여명을 초청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미를 더했다.

기아는 차량 전시존을 운영해 올해 출시한 EV5, EV3, PV5, 타스만 등 다양한 차량 라인업을 공개했다.

또 60주년 기념 영상을 통해 1965년 아시아자동차로 출발한 광주공장이 현재 대차그룹 편입 이후 수출 중심 공장으로 성장한 과정을 소개했다.

축하 공연에서는 배기성, 이보람, 황가람, 김원선 등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화려한 퍼포먼스와 가창력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문재용 공장장은 “자동차 산업 환경이 쉽지 않지만 오토랜드광주 임직원들은 어떤 상황도 극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광주시민의 응원이 더해진다면 위기 돌파는 물론 오토랜드광주가 앞으로 100년을 이어갈 공장이 될 것이라 믿고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여수광양항 물동량 작년보다 5.1% 줄어

3분기까지 석유화학 6.1%·철강 2.7%·자동차 17.2% ↓

신규 서비스 유치 등 컨테이너 물동량은 2.5% 증가

올해 여수광양항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여수광양항의 총 물동량은 1억9790만t으로 전년(2억850만t)에 비해 5.1%가 감소했다.

물동량 감소 원인은 여수석유화학산업의 수출입 부진과 D-2정박지 해상환적 원유 물동량 감소, 철광석 수입 물동량 감소, 자동차 미국 수입 관세 영향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은 1억214

만5000t을 처리해 전년도 1억876만3000t에 비해 6.1% (662만t), 철강은 6958만1000t을 처리, 전년도 715만t에 비해 2.7% (191만900t)가 각각 감소했다.

또 자동차는 70만7571대를 처리, 전년도 85만4127대에 비해 17.2% (14만6556대)가 줄어 들었다.

반면 컨테이너 물동량은 소폭 증가했다. 1월부터 9월까지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151만8000TEU를 기록, 전년도(148만2000TEU)에 비해 2.5% (3만6000TEU)가 증가했다.

수출입 물동량이 제마나이 신규 서비스 유치와 중국 국경절에 따른 조기선적 등에 힘입어 소폭 반등한 것이다. 하지만 환적 물동량은 17만4000TEU 처리에 그쳐 전년 동기 24만2000TEU에 비해 무려 27.9% (6만8000TEU)나 감소했다.

환적 물동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지난 2월 알라이언스 재편 이후 대형 해운사들이 글로벌 허브항만 중심으로 환적화를 처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수항만공사 관계자는 “석유화학 감소 여파 등으로 총 물동량의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며 컨테이너 물동량도 환적화물 급감으로 어렵지만 지난해 달성한 201만TEU는 상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광주 건설경기 부진·소비침체 지속

제조업 생산·수출은 회복세

광주지역의 제조업 생산과 수출, 건설투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소비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건설투자만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의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9.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 생산은 전기장비(77.5%), 자동

차·트레일러(47.0%) 등이 늘면서 호조세를 보였다.

수출은 전기장비·전자부품(51.4%), 자동차 등 기계류(44.0%)에 힘입어 전년 동월보다 43.6% 늘었다.

건설투자는 공업용(134.1%)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비와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8.2%, 0.1% 감소했다.

고용은 비임금근로자가 6000명 줄었으나 임금근로자가 2만5000명 늘어 전년 동월 보다 1만9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7%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전남의 주요 경제 지표는 건설투자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부진했다.

제조업 생산이 제1차 급속(-6.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3.1%)이 부진하며 전년 동월 대비 4.8% 줄었다.

같은 기간 수출은 선박 등 기계류(-27.6%) 등이 줄면서 3.6% 감소했다.

소비는 21.7% 감소했고, 아파트 가격은 0.2% 내렸다. 취업자 수는 3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2.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투자는 주거용(202.4%), 상업용(112.4) 건축착공면적이 늘면서 전년 동월보다 40.1% 증가했다.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0월 기준)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3%, 2.4%를 기록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Spain Spirit

스페인 스피릿

GOMA GRAZE

스페인 포도증류주 고마 그라제

LA MANCHA